

‘죽은 자의 진실’이 ‘산 자의 거짓’을 심판한다



故 조세부 신부

광주지검,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기소

고 조비오신부 헬기사격 증언...세상 떠난 이후 총탄자국 확인 1989년 광주일보 인터뷰서 공수부대 만행 강한 분노 표출도 전두환 회고록서 파렴치범 몰며 왜곡...분개한 유족들이 고소

“(1980년)5월21일 1시 반에서 2시 사이 불로교 상공 170m 지점에서 사직공원을 향해 떠 있는 헬기를 봤다.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드드드드’ 세번 울리고 동시에 불이 픽 나왔다.”
1989년 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고(故) 조비오(1938~2016) 신부가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 처음

증언하는 상황이다.
청문회 당시 조 신부는 구체적으로 묻는 특조위원의 질문에 “5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목격했으며 ‘드드드 드드드 드드드’ 연속으로 세번 소리가 울렸다”며 “당시에는 사직공원을 향해 왔는지 불로교 전편을 향해 발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불로교전편 군중을 향해서 쏘았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후 조 신부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조종사들에게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 신부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1995년 검찰조사에도 참석해 “5월 21일 호남동 성당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사제들과 함께 목격했다. 시민들은 공수부대와 달리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1995년 검찰조사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헬기사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신부의 증언은 그가 세상을 떠난지 3달여가 지난 2016년 12월 전일법원에서 총탄 자국 200여개가 발견되며 사실상 확

인된다. 총탄 자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헬기 사격에 의한 흔적으로 판명났으며 지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회도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신부는 5·18기념재단(1995년 설립)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 5·18과 함께 했다. 감정한 성품으로 정평이 난 그는 지난 1989년 2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게 총(銃)이 있었다면 그 총으로 공수부대를 향해 쏘고 싶었다”고 말하는 등 5·18 당시 느꼈던 강한 분노를 고백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도 존재했다. 조 신부는 생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 항쟁 이후 상무대 영창에 갇혔을 때 자신을 가둔 군인들이 침묵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용봉동성당 주임 신부는 “조 신부님은 전 전 대통령의 처벌보다는 그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지난 해 4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게재하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후 전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며 두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한 뒤 모두 불응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헬기사격 전방위 자료 확보...혐의 입증 자신 광주일보 보도 미국대사관 비밀전문도 한몫

검찰, 전두환 기소 계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23년 만에 ‘5·18 명예훼손’으로 범정에 다시 세우게 된 것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광주일보(2018년 2월 22일자 1면)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미국대사관의 비밀전문도 혐의 입증에 핵심 자료가 됐다.
검찰은 5·18 관련 국내외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 받았고, 헬기사격까지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9년 기소됐을 때 수사·재판 자료와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기소의 주요 근거가 됐다. 헬기사격 목격자 47명 진술도 확보했다.
미국 대사관이 정보원을 통해 취합한

1980년 5월 21일 상황을 미 국무부에 보고한 비밀전문을 입수해 헬기사격 사실도 확인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비밀전문에는 “군중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총이 발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Crowds were to disperse or be fired on by Helicorp-ters. But there was great indignation when firing actually took place)고 적혀있다.
이 문건은 항쟁 상황을 일자별로 종합해 담은 것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던 정확한 시각과 장소는 담겨 있지 않았다.
검찰은 그밖에 일본·독일·프랑스 대사관도 접촉해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관련 자료도 입수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곧바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함동분향소 추모 발길 3일 나주시 반남면사무소 주차장에 마련된 영암 교통사고 참사 희생자 함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집단폭행’ 경찰 소극 대응 논란

출동 후 가해자 제대로 제압못해 국민청원 하룻만에 13만명 넘어 경찰, 뒤늦게 살인미수 혐의 검토

폭력 조직원에 버금가는 잔인함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광주 수원지구 집단폭행 사건(광주일보 3일자 6면)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시 출동 영상과 집단폭행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는 ‘2018년 4월 30일 광주 집단 폭행 사건 2’라는 제목으로 경찰 출동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가해 남성들이 출동한 수원지구대 경찰의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체의 문신을 드러낸 채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일부는 폭력을 휘두른 뒤 차량에 기대 담배를 피우는 등 다소 여유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출동한 한 경찰관은 위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와 거리를 유지한 채 지켜보기만 했으며, 또 다른 경찰관은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명규 광주광산경찰 수원지구대장은 “동영상에 나온 부분은 출동 초기로 이후 상황을 판단하고 미리 준비한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문제없이 진압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폭행 사건 당시 상황도 일부 공개됐다. 57초짜리의

영상에는 가해 남성 3명이 풀발에 앞드려 있는 한 남성을 일으켜 세운 뒤 집단으로 폭행하고 있었다.
유튜브에 공개된 두 영상은 3일 오후 2시 기준 조회 수가 각각 6만부와 9만부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최상위 순위를 유지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위해 올라온 ‘한번씩만 봐주세요’라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하루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은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산경찰은 이들의 폭행 방법, 범행 계획 여부, 폭력조직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영암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통해 재구성

운전 부주의·차량 결함 여부 등 경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

19명의 사상자를 낸 영암 미니버스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와 재구성을 위해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원인과 운전 부주의, 차량 결함 가능성 등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미니버스 운전자 이모(72)씨의 졸음·음주 운전이나 급속스러슨 운전자 이상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했다.
경찰은 앞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버스과 부딪친 SUV 운전자 이씨는 사고 전부터 1차로로 정상 주행하고 과속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미니버스가 사고 전부터 1·2차로를 넘나들며 비틀거리듯이 ‘갈지자’운행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원인과 운전 부주의, 차량 결함 가능성 등 모든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미니버스 운전자 이모(72)씨의 졸음·음주 운전이나 급속스러슨 운전자 이상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했다.
경찰은 앞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버스과 부딪친 SUV 운전자 이씨는 사고 전부터 1차로로 정상 주행하고 과속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절도 재미불린 70대 결국 ‘덜미’

○70대 노인이 평소 소일거리 삼아 거닐던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심심풀이(?)’로 옷과 신발을 6차례나 훔쳤다가 경찰서행.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76) 할아버지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B(여·54)씨의 신발가게에서 4만5000원 상당 구두를 걸옷 속에 몰래 넣어 가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다른 가게에서 총 6회에 걸쳐 23만원 상당 옷과 신발을 훔쳤다는 것.
○CC-TV를 통해 붙잡힌 A 할아버지는 훔친 옷과 신발을 모두 경찰서에 들고 왔는데, 경찰 관계자는 “할아버지의 행편이 어렵지는 않으며, 지하상가에 손님이 몰린 틈을 타 우연히 마음에 든 옷을 훔쳤는데도 들켜지 않아 범행을 이어온 것”이라고 설명. /김용희기자 kimyh@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6200만원
- H. 010-6838-1230

